

# 일의 意味와 價値에 대한 考察

金 榮 龍 \*

## 〈 목 차 〉

- I. 緒 論
- II. 일의 意味의 歷史的 變遷
- III. 일의 意味와 일에 관한 名言
- IV. 일의 價値
- V. 結 論
- \* 참고문헌

## I. 緒 論

人間은 누구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좀 더 나은 생활, 좀 더 보람있는 삶을 기대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즉 幸福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인간다운 品位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자유롭고 떳떳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나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 자기 人生의 目標를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가는 과정에서 인간의 삶은 희망과 비전이 있고, 더 나아가 아름다운 結實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人間의 歷史는 일의 역사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면서부터 일이 있었음은 물론이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하고 있으며, 또한 미래에도 일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

\* 제주교육대학교 실과교육과 교수

의 條件과 樣態는 變해 왔지만 일 자체는 인간의 삶과 함께 계속되어 왔다. 일은 곧 인간의 삶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며 조건이라 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로부터 일하는 것을 인간의 本質로 규정하여, 생각하는 인간(homo sapiens)과 일하는 인간(homo laborans)이라 불려왔다.

인간은 일하는 動物이며, 누구나 다 일하면서 살고 있지만, 왜 일하고 있으며, 또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모두 자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일하면서 사는 존재일 뿐 아니라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사는 존재이다. 그러기에 꿀벌의 일이나 개미의 일은 수천 년이 지나가도 그 方法과 樣式이 별로 變함이 없다. 인간만이 일에 관한 생각을 통해 일을 變化시키며 발전시켜 왔다.<sup>1)</sup>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삶의 중심 부분이며, 각자 價値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일을 함으로써 經濟的이고 물질적인 보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일은 각자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을 나타내며, 각자의 潛在能力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일은 곧 自我實現, 自我完成의 場이기도 하다. 한편 일(특히 노동)이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며, 정신적으로 인간을 황폐화시키며 따라서 노동의 현장은 비인간적인 것으로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sup>2)</sup>

현대 과학 기술문명의 급속한 발전에 이은 情報化 사회의 도래는 이 사회를 점차 多樣化시키고 分業化시켜, 인간의 生活樣式은 물론 意識構造에까지도 급격하게 변모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高度化되고 專門化되어 가는 技術水準의 발전은 인간과 일, 교육의 새로운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강요하고 있으며, 일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사회에는 전통적으로 일을 중시하고 적극적으로 일에 참여하기보다는 인문을 崇尚하고 물질보다는 精神을 중시하였다. 또한 일을 통하여 자기를 實現한다기 보다는 일하는 것을 賤視하고 하인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등, 일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던 것으로 인정된다.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긍정적인 사회적 동의를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職務現場에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물론 일을 준비하는 교육에 대해서도 많은 影響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sup>3)</sup>

1) 김태길 외 3인, 삶과 일, 정음사, 1986, p.66.

2) 金義順, 일의 사회적 의미, 부산대 사대논문집, 27집, 1993, pp.43~44.

3) 柳彰烈, 일에 대한 人間基本態度的 比較 文化的 考察, 충남대 공업연구소 논문집, 제7권 제 2호, 1984, p.68.

학자들이 未來社會를 知識社會(knowledge society) 또는 情報社會(information society)라고 부르는 것도 앞으로는 지식 또는 정보가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중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니엘 벨(Daniel Bell)과 같은 학자는 農業社會의 부의 원천이 토지였고, 公業社會의 부의 원천이 자본이었다면, 후기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부의 원천은 지식 또는 정보라고 말한다. 미래 학자들은 산업이 소프트화(soft) 한다고도 말한다. 그것은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기계나 공산품과 같은 하드웨어(hardware)보다는 아이디어, 디자인, 혁신, 정보, 프로그램 등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software)의 상품이 시장에서의 중요 상품이 될 것<sup>4)</sup>이기 때문이다.

情報産業社會에서는 情報技術의 발달로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일들이 생겨나는가 하면 과거에는 중요한 활동으로 평가되던 일들이 아무 쓸모 없는 일로 전락되어 소멸되기도 한다. 앞으로 社會들은 産業社會의 단계를 거쳐 後期産業社會(post-industrial society)<sup>5)</sup> 또는 專門職社會(professional society)<sup>6)</sup>로 되어 가는 경향임을 고려할 때 일의 의미를 재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研究에서는 우리 나라 經濟가 國際通貨基金(IMF) 관리 체제의 어려운 時代的 상황을 고려하여, 일의 의미에 대한 올바른 認識과 일의 價値를 파악하여 일의 진정한 價値觀을 파악해 봄으로서 일에 대한 올바른 시사점을 구하는데 있다.

## Ⅱ. 일의 意味의 歷史的 變遷

### 1. 고대 그리스 시대

고대 그리스인들은 일을 고통스러운 行爲로서 저주이며, 천한 활동으로 노예의 領域이라 여겼다. 그리스어에 일을 의미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ponos(고통스

4) 김태길, 전계서, pp.164~165.

5) Bell, Daniel,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N. Y., Basic Books, 1973 : 金義順, 전계서, p.4.

6) Perkin, Harold, The rise of professional society, London: Routledge, 1989 : 金義順, 전계서, p.44.

러운 활동을 의미), ergon(task, 과업을 의미), techne(technique, 기술을 의미)이다. 여기에서 그리스어 ponos는 라틴어 poena와 같은 어원으로 슬픔을 의미한다. 이 ponos는 무겁고 고통스러운 임무(fatigue, travail, burden)의 뜻으로 전해졌고, 그 후 영어로는 단조롭고 기계적이며 힘든 일의 의미로서, 그리스인에게는 모든 종류의 肉體勞動이란 뜻으로 전환되었다.<sup>7)</sup>

또한 ponos는 實踐·行爲(praxis)와 製作·일(poiesis)이란 의미에서 재해석이 시도되고 있다. 즉 知的人間(homo sapiens)에 대한 工作的人間(homo faber)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으며, 그리스어에서 praxis와 poiesis로 구분할 때 일-勞動은 후자와 연관되는 것이다. 이렇게 勞動의 뜻에 가까운 ponos는 眞理를 관찰하는 theoria를 방해하고 理性的의 눈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theoria에 비하여 훨씬 低級한 것으로 평가되었다.<sup>8)</sup> Praxis는 철학자가 자신의 학설을 청중에게 알리는 일, 정치가가 시민을 설득하는 행위 등 인간의 자유롭고 자주적이며 정신적인 활동을 의미하는데 비해, poiesis는 職人의 일, 物的인 일로서 자신의 목적이 아닌 물건의 형상(本質)에 의해 미리 결정되어 있는 목적을 위한 행위 또는 사용인의 필요와 요구에 응하기 위한 행위로 생각하였다.<sup>9)</sup>

고대 그리스 사회의 풍조를 보면 自由(freedom)와 生存(necessity)의 영역은 정반대의 개념으로서 노예 노동은 生存의 영역에 속하여, 직업인으로 항상 일을 해야 하는 자는 賤하며, 他人의 육체적 노동에 기초한 정치 영역의 활동은 가장 고귀한 것이지만, 생존의 영역은 創造活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일이란 賤하고, 品格을 떨어뜨리는 사악한 것이므로 文明化된 아테네 시민은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일이란 農事처럼 自然物을 人間의 生存慾求에 알맞게 變形시키는 고되고 힘든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민들에게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천한 활동으로 시간 낭비와 더불어 德의 추구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최상의 정부 상태에 있어서는 市民계급은 도덕을 증진시키고 政治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은 奴隸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엘리트인 市民階

7) Tilgher, Adriano, Homo Faber, Henry Regnery Company, 1958, pp.3~10. : Grint, Keith, Society of work, Polity Press, 1991, pp.15~17. : 金義順, 전계서, p.49.

8) 清水正德, 勞動의 意味, 한마당 편집부 옮김, 1983, pp.25~26.

9) 柳彰烈, 전계서, p.69.

級이나 哲學者들이 예술, 철학, 정치 등의 순수한 精神活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生産專門階級으로서의 奴隸活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思想의 영향으로 그 후에 餘暇는 일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이데 반하여, 일(work)은 賤한 활동으로서 奴隸가 하는 것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형성하였다.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가 구분한 市民階級の 일과 奴隸 生産活動인 일의 개념은 아렌트(Hannah Arendt)가 주장한 일(work)과 노동(labour)을 구분한 개념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생물학적이고 경제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활동은 勞動(labour)이고, 일(work)은 內面的이면서 人間的인 활동으로 단순한 再生産이 아닌 창조적인 활동이라 구분하여<sup>10)</sup> 아리스토텔레스의 市民階級の 임무에 해당되며, 奴隸階級の 일은 아렌트의 勞動(labour)개념에 가까운 것이다.

## 2. 前産業社會

구약 창세기에서는 일에 관한 두 가지 성격이 모두 그려져 있다. 첫째는, 초기 기독교에서의 일은 인간이 저지른 原罪 때문에 하느님이 인간에게 부과한 일종의 刑罰이라는 것이다.<sup>11)</sup>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神의 형벌을 받아 수고와 고통을 당하면서 힘들게 일을 해야만 살 수 있게 되었다. “땅이 저주를 받아 수고스럽게 일을 해야 땅이 열매를 맺을 것이라” (창세기 3장 17절)고 했다. 인간은 이제 땅을 흘리고 고된 勞動을 해야만 살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일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며 즐거워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贖罪해야 하는 숙명적인 짐으로서 이해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둘째로, 이러한 贖罪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 일의 개념에 긍정적인 성격도 포함시키고 있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天地萬物을 만드는 일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하나님도 태초에 일을 했다고 서술하고 있다(창세기 1장 1-2절). 그가 천지를 창조하면서 일을 했다는 것은 일곱째 되는 날은 일을 하지 않고 쉬었다는 기록에서 더

10) Freidson, Eliot, “Labour of love in theory and practice”, in Erikson, Kai(ed.), The nature of work, Yale Univ. Press, 1990, p.150.

11) Tilgher, Adriano, 전계서, p.27 ; 金義順, 전계서, p.51.

육 분명해 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다 인간을 살도록 한 뒤에 그 동산을 잘 가꾸고 보존하라고(창세기 2장 15절) 하셨는데 이것은 곧 자연을 잘 가꾸어서 필요한 것을 섭취하되 파괴되지 않고 유지되도록 일을 하라는 명령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고로 창세기에서의 일은 곧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해 준 사명이며 부탁이라 하겠다.<sup>12)</sup> 그리고 일(work)은 生計를 위하여 필요하며, 生産物은 필요로 하는 가난한 형제들에게 나누어 가짐으로서 施惠者에게는 신의 축복이 내려진다고 하여 일은 肯定的 가치를 지니게 된다.<sup>13)</sup>

舊約聖書에서는 인간이 일한 것은 그것이 축복이었던 혹은 형벌이었던 하느님의 명령과 뜻에 따르는 것임을 강조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로 여겨진다. 이러한 사상은 新約聖書에 와서도 계승이 되며, 예수나 바울(Paul)이 모두 손으로 일을 하며(목수나 장막을 짓는 자) 살았다. 특히 使徒 바울(Paul)은 일에 관한 많은 敎訓을 남겼는데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if any would not work, neither should he eat,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고, 단적으로 일하는 것이 자연적인 의무임을 강조했다. 이것은 아마 “얼굴에 땀을 흘리고 밥을 먹는다” (창세기 3장 19절)는 구약에서의 인간의 운명과 맥을 같이 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sup>14)</sup>

近代的 의미의 일(work)의 개념을 확립시키는데는 루터(Martin Luther), 칼빈(John Calvin)과 宗教改革 후 유럽의 新教徒(Protestant)의 공헌이 지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일이 비록 思考와 祈禱보다는 낮은 중요성을 갖지만, 일은 모두에게 必須的이고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일을 통하여 개인은 神의 뜻을 수행한다고 여겼다.<sup>15)</sup> 특히 루터의 견해를 보면, 일은 신에게 봉사하는 것으로서 최선의 봉사방법은 각자에게 주어진 직업(beruf, profession, vocation, calling)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16)</sup> 이러한 루터의 召命意識(vocatio)으로 하여 世俗的인 일은 종교적으로 참고 견디게 되었으며, 일의 의미와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중세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으로부터의 召命意識이란 승려나 사제들에게

12) 김태길, 전계서, p.69.

13) Tilgher, Adriano, 전계서, p.30 : 金義順, 전계서, p.51.

14) 김태길, 전계서, p.70.

15) H. H. London, Principles and techniques of vocational guidance, Charles E. Merrill Pub Co., Columbus: Ohio, 1973, p.25.

16) Tilgher, Adriano, 전계서, p.49.

만 주어진 靈的인 것이었다. 루터는 이 靈的召命(vocatio spritualis)과 세상에서의 召命(vocatio externa)으로 나누어서, 靈的召命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俗世에서의 활동과 일(work)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라 해석함으로써 사람들이 職業活動과 일이 모두 神과 人間을 위한 奉仕이며 召命에 따른 활동이라고 일(work)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였다.<sup>17)</sup> 이러한 해석으로 비친한 것으로 생각되었던 民衆(職人)의 職業勞動은 “神에 의해서 부여된 使命” 이라고 바뀌었으며, 그것은 단순한 罰의 의미에서 발전되어 훨씬 풍부한 의의와 가치가 그 행위 속에 부여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사상 역시 노동은 내재된 人間에 의해 육체를 지배당하는 수단이라는 기준이 자리잡고 있었고, 근대적 의미의 經濟的 勞動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루터에게는 勞動을 “人間的 使命” 으로 본 적극성과 近代的·社會經濟的 勞動이라는 의미에 대한 소극성의 두 가지 측면이 공존한다고 할 수 있다.<sup>18)</sup>

16세기에 ‘유토피아(utopia)’ 라는 理想社會를 그린 영국의 토마스 무어(Thomas More)는 사람들이 모두 일을 합리적으로 나누어서 한다면 勞動時間은 훨씬 짧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는 精神勞動과 肉體勞動을 고정적으로 분리하는데 반대했으며, 도시와 농촌의 일도 고정적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서로 교환해 가며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그래서 농촌 노동자가 도시로 와서 다른 일을 해 보기도 하고, 도시 근로자들이 몇 년 뒤엔 농촌으로 가 농사를 짓는 교환근무가 가능하게 되면 일에 대한 염증과 피로가 줄어들고 의욕도 더 생기리라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精神勞動者와 肉體勞動者 사이에도 적절한 때에 교환근무를 하든가 혹은 하루의 일하는 속에 양자를 다 포함하도록 일을 조직하든가 하면 훨씬 더 일이 바람직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사회 전체의 성원들이 일을 골고루 합리적으로 나눈다면 하루에 일하는 시간은 여섯 시간 정도면 족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아직 8시간 勞動제도 확립되지 않고 법제화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던 시절에, 공상적이나마 상당히 진보적인 생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그는 일하는 시간과 식사하는 시간 그리고 잠든 시간 사이에 적당한 간격의 빈 시간을 허락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이나 趣味生活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탁월한 제안을 했다.<sup>19)</sup>

‘태양의 나라’ 라는 理想社會를 그린 이태리의 캄파넬라(Tommaso Campanella)

17) 金義順, 전계서, p.52.

18) 清水正德, 전계서, p.40 : 柳彰烈, 전계서, p.70.

19) 김태길, 전계서, pp.87~88.

는 이상적인 사회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일을 분담해야 하며, 生産勞動의 일이나 공적인 行政官吏들의 일들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하루에 네 시간씩만 일해도 모든 욕구들을 충족시키며 사회가 유지되어 갈 수 있다고 보았다. 그 밖의 나머지 시간에 사람들은 독서, 예술적 활동, 산보, 운동 등 각자의 趣味와 適性에 따라 하고 싶은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자유시간에 더 일하고 싶은 사람은 더 생산적인 노동을 할 수도 있다. 채소나 과일을 재배한다든지 무슨 부업을 한다든지, 그러나 그것은 의무로서의 일이 아니고 자의에 의한 일이며, 꼭 代價나 賃金を 바라고 하는 일은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자유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면 정신적인 활동이나 학습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리라고 생각하였다.<sup>20)</sup>

### 3. 産業社會

근세 市民社會로 내려오면서 일의 의미가 긍정적으로 정립되어, 일은 천한 것만도 아니고 외적인 강요와 물리적인 힘에 의한 형벌의 고통만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일은 누가 시키거나 강요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스스로 살기 위하여, 또한 보다 더 잘 살기 위하여 하지 않으면 안되며,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을 하게 된 것이다.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은 “富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勤勉이요 다른 하나는 節約이라” 고 했다. 그리하여 市民社會와 資本主義의 산업화 과정에서 일과 근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德目이 되었고, 富와 幸福의 근원은 신분이나 學識이 아니라 勤儉과 절약이었기 때문에 일과 노동을 중시하는 價値觀이 생겨나게 된다. 육체노동은 천하고 정신노동은 귀한 것으로 여기던 일의 관념이 바뀌게 되어 18, 19세기에 와서는 완전히 産業化 시대가 되기 때문에 육체적 노동을 神聖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文明이 높아질수록 勞動을 神聖하고 名譽스러운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일과 근면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하게 된 주요 계기는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20) 김태길, 전계서, pp.88~89.



시작된 産業革命(industrial revolution)이었다. 1776년에 제임스 와트(James Watt)가 발명한 증기기관이 섬유생산에 이용되면서, 획기적인 生産量의 증대를 가져왔고 단시일에 엄청난 富를 축적하게 된다. 기계와 사람이 합해서 일을 했을 때 産業의 革命을 가져왔고 경제적 이득과 발전이 눈부시게 나타나면서 일과 勤勉의 위대성은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이 무렵부터 勤勉과 産業만이 나라와 개인을 부강하게 만든다는 가치관이 뿌리내리게 되고, 기계화·산업화와 함께 일을 통한 생산품의 가공과 제도가 공장에서 신속하게 나타나자, 일이 곧 商品과 財貨와 價値를 창조하는 원동력임을 실감하게 된다. 실제로 工場을 차려 생산을 많이 하는 자들이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해지는 것을 직접 보게 되면서, 일은 富와 財産을 가져온다는 인식을 굳히게 된다. 따라서 일은 고된 노동이요, 고통스런 고역이며, 아무리 일해도 가난과 궁핍한 삶을 면할 수 없다는 觀念이 무너지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일의 生産性이 현저하게 향상되면서 일의 관념에 변화가 나타나는데, 일이란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技術과 知識을 가져야 할 수 있고,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효과적으로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관념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勞動者들이 배워야겠다는 교육열이 갑자기 높아지고,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프란시스 베이컨의 철학이 대중화되면서 노동자들의 각종 교육 욕구가 높아져 노동자 교육이 성행하게 되었다.

産業의 발전과 더불어 일의 종류, 능력 및 자격이 다양해지면서, 精神勞動과 肉體勞動의 차이도 좁아지게 되었다. 육체 노동자도 다소 머리를 쓰면서 계산과 때로는 창의적 능력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정신노동을 견비해야 되며, 정신 노동자는 특권층이나 유한층의 사람들만의 것이라는 관념도 바뀌게 되었다. 또한 産業化 과정이 가져온 큰 변화는 일과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된 것이다. 산업화로 많은 농민이 도시와 공장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농민들이 전통적인 職業觀과 관념에서 해방되어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일과 경제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이야말로 18, 19세기의 상공업의 발달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정신노동뿐만 아니라 육체노동도 바람직한 일로 여기게 되어, 일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게 되었다.<sup>21)</sup>

또한 産業社會로 일의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일은 社會的 行動으로서 삶의 經驗을 충족하고 풍족하게 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부여되었다. 일은 目標指向的인 集團

21) 김태길, 전거서, p.77~80.

活動(goal-directed group activity)을 통하여 개인은 同僚(work member)관계로서 개인의 가치, 신분의 보호 등을 아울러 추구하게 되었다.<sup>22)</sup>

그러나 일과 노동에 대한 긍정적인 관념은 산업화가 더욱 진행되면서 변하게 되어, 부정적인 것으로도 나타나게 되었다. 우선 산업화 시대의 일의 구조와 성격이 대부분 工場勞動과 賃金勞動으로 나타난 데서 비롯되었다. 일이 엄청난 生産力으로 대량의 商品을 만들어 내었지만, 상품의 가치는 효용가치나 노동가치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고,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市場價值 즉 交換價值에 의해 결정되게 되었다. 교환가치에 의해 바뀌어진 상품의 대가는 원료비나 生産費를 공제하고 실제 일한 勞動量에 따라 分配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資本家의 이익을 위해 剩餘價值를 남기고 불공평하게 分配되었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의 것인데 비해, 富와 財産의 축적은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노동자는 기계처럼 쉴새 없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할수록 육체적 힘의 소모와 피로가 심해져, 산업화 시대의 일은 기대한 만큼의 편리와 안락을 가져다주지는 않았다.

산업의 필요에 따라 거기에 적합한 技術과 能力을 가져야만 일자리를 얻게 되므로서 기계에 종속되게 하는 노동과정에서의 疎外가 두드러지게 된다. 일자리는 시장의 需要·供給의 원리에 따라 고용되다가도 필요 없어지면 해고되는 철저한 자본주의적 합리성 위에서 운영되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失職되었을 때 기아와 생활고를 두려워하게 되고 이것이 資本家가 低賃金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 그래서 일을 통하여 富와 행복과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저임금, 고달픔, 예속, 부자유를 얻게 되었다.

産業社會에 와서 일의 의미는 고도의 生産性和 극도의 疎外性을 함께 지닌 二重構造를 가진 것으로 규정될 수 있다. 즉 일은 幸福을 주면서 苦痛을 주었고, 自我實現을 해 주면서 自己疎外를 가져왔으며, 財産을 만들어 주기도 했으나, 가난과 실업을 주기도 했고, 自由를 주는가 하면 隸屬을 주기도 했다.<sup>23)</sup>

22) 柳彰烈, 전계서, p.70.

23) 김태길, 전계서, pp.81~83.

### Ⅲ. 일의 意味와 일에 관한 名言

#### 1. 일의 意味

“일이란 自身 혹은 自身과 他人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努力이다”라고 할 수 있다. 그 노력의 代價는 돈을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人間의 基本要求를 성취한다는 데 重要性이 있다. 따라서 일이란 人間의 權利이고, 社會的 服從은 아니다.<sup>24)</sup> 그러나 론코(Ronco, William) 등이 주장하는 일의 의미나 범주는 사회 구성적이며 변한다는 것이다. 19세기 영국 노동자들이라면 대부분 일이란 生命처럼 주어진 것으로 즐기기보다는 견디어 내야 하는 것이었고, 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쁜 것으로서 일이라는 활동과정에서 滿足이나 幸福을 기대하는 것은 적절한 생각이 아니라고 여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수의 미국인들은 일이란 필요를 위한 수고(necessary toil)로써 生活費를 벌어 家族들을 부양하고, 또한 餘暇를 즐기기 위해 필요한 활동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sup>25)</sup>

그린트(Grint, Keith)도 일에 대하여 명백하고 客觀的인 정의를 내릴 수는 없으나, “일이란 自然을 변형시키는 活動”이라 한다면 그 활동은 통상 사회적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 활동이 일인가 아닌가는 그같은 활동이 일어나는 특정한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다르다고 보는 것이다. 어떤 특정한 활동이 일인지 또는 餘暇인지는 그 활동이 존재하는 時間的·空間的·文化的 環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sup>26)</sup>

엠페스타인(Epstein, Cynthia Fuchs)은 사회 전반의 文化的 關係를 고려하므로써 일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한 사회의 文化가 일에 대하여 사람들의

24) Kenneth Hoyt, “Career education, vocational education and occupational education: An approach to defining differences.” Second annual distinguished lecture, 1973~1974, The center for vocation(The Ohio University, 1974), p.2  
: 李茂根, 實業-技術 教育論, 培英社, 1984, p.12. : 全國教育大學校 實科教育研究會 編, 實科教育, 教育出版社, 1997, p.20.

25) Ronco, William and Lisa Peattie, Making work : A perspective from social science, in Phal, R.E.(ed.), 1988, pp.709~721.

26) Grint, Keith. The society of work, Cambridge, Polity Press, 1991, p.7.

관념과 활동을 특정 지우며, 또한 그들 자신에 대해서도 규범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勞働者가 직장에서 자신들의 일에 대한 의미는 여타 日常生活에서의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sup>27)</sup>

인간을 위한 일의 다섯 가지 機能은, ① 生計를 위한 收入 혹은 方法과 手段을 제공하고, ② 生活活動을 規則化하며, ③ 個人的 位置를 확인해 주고, ④ 社會活動의 機會를 제공하며, ⑤ 많은 有益한 生活經驗을 제공한다.<sup>28)</sup> 일이란 의미가 歷史的 變遷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나를 좀 더 구체적으로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sup>29)</sup>

1) 슬픔(sorrow) : 일에 해당하는 고대 그리스어 ponos는 라틴어 poena와 같은 語幹인데, 라틴어의 경우는 슬픔을 의미한다. 즉 일을 한다는 것은 삶에 있어서 겪지 않으면 안되는 슬픔 중의 하나였다.

2) 罰과 贖罪(punishment and expiation) : 聖經의 '창세기' 편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고대 히브리인은 일을 그들의 선조에 대한 神의 벌이라 생각했고, 일을 통해서 속죄한다고 여겼다.

3) 慈悲(charity) : 초기 基督教 精神에서 살펴 볼 수 있으며 일을 통해서 속죄한다는 뜻보다는 더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였으며, 일을 하는 것은 신의 자비와 은총이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4) 地位(state) : 일은 神이 인간에게 부여한 社會的 地位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마틴 루터(Martin Luther)의 宗教改革 후 淸教徒 精神으로 이루어지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 아울러 일에 대하여 경제적 의미가 첨가되었다.

5) 流動性과 自由(mobility and freedom) : 칼빈(Calvin)의 主唱으로 일은 神의 意思이기 때문에 인간은 일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流動性이란 인간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를 지칭하고, 自由란 이와 같은 유동성에 대한 支柱를 뜻한다. 이 당시 일로부터 얻은 利潤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27) Epstein, Cynthia Fuchs, The cultural perspective and study of work, in Erikson, Kai and Steven Peter Vallas(ed.), The nature of work, London : Yale Univ. Press, 1990, pp.89~96.

28) Sigmond Nosow and William H. Form, Man, work, and society, New York: Basic Book Pub, 1962, p.9 : 李茂根, 전게서, p.12.

29) Baily, L. J. and R. Stadt, Career education: New approaches to human development, Blommington, Illinois, MacNight Pub. Co., 1973, p.208~213 : 李茂根, 전게서, p.107~108.

사용할 수 있는지가 논의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資本主義와 연결되었다. 이러한 정신을 근거로 하여 産業化와 아울러 서양의 文化·社會의 特性을 규정하는 일의 倫理가 성립되었다.

6) 進歩(progress) : 미국의 開拓精神과 이어지며 이 때부터 實業教育과 일의 연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진보란 일을 통하여 연계 되는 個人的 · 集團的 · 社會的 發展을 의미한다.

7) 定着(establishment)과 反撥(revolt) : 기성세대는 대체로 일을 ‘定着’이라는 개념에 연결시키고 있으며, 이는 新快樂主義(neohedonism)라 비난받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淸教徒的 日, 倫理意識이 사람들간에 희박해 지고, 일을 오직 물질적 쾌락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데서 비롯된다. 반면 상당수의 靑少年은 기성세대 및 기존체제에 대한 反抗에서 反勤勞的(anti-work)이며 反定着的 이다.

8) 人間的 條件(human condition) : 後期産業社會로 들어오면서 ‘餘暇’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일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으며, 일에 대한 意味의 해석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즉 인간을 인간답게 살도록 인도하는 役割과 機能이 일에 부가된 것이다.

9) 尊嚴性(dignity) : 일이 인간을 인간답게 살도록 끌어올리는 杖줄 구실을 한다고 보면, 일에 대한 존엄성마저 부여되게 된다. 이것은 한편으로 과거에 일이 종교적 영향 아래 놓여져 있던 淸교도적 윤리에서 진일보하여 生活의 質(quality of life)이라는 개념과 인간적 삶의 기회의 증대를 일을 통하여 부여해 줄 수 있다는 개념이 첨부된 것이다.

## 2. 일에 관한 名言

여기에서는 일의 意味를 吟味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에 관한 유명인들의 名言錄, 格言, 속담 등에 나타난 名言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sup>30)</sup>,<sup>31)</sup>,<sup>32)</sup>

30) 송재선, 우리말 속담 큰사전, 서문당, 1983.

31) 이어령, 문장백과대사전, 금성출판사, 1990.

32) 李乙煥, 名言大百科, 錦湖書館, 1988.

1) 名語錄

- ♣ 가장 뛰어난 천분도 무위도식에 의하여 멸망한다. — M.E. 몽테뉴(프랑스의 사상가)
- ♣ 가장 유쾌하면서 가장 보람되고, 게다가 가장 값싼 최상의 시간 消費法은 항상 일하는 것이다. — C. 힐티(스위스의 철학자)
- ♣ 각자는 그 능력에 따라 일하고, 그 노동에 따라 주어진다. — 생 시몽(프랑스의 사회학자)
- ♣ 굶주리고 있는 게으른 민중에게 신으로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일거리이며, 그 代價로 먹을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신은 인간이 자기 먹을 것을 위해 일하도록 창조하셨고, 일하지 않고 먹는 자들은 도둑이라고 말씀하셨다. — M.K. 간디 / 영 인디아
- ♣ 귀찮은 일이다 괴로운 일이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 일을 괴롭게 만든다. 즉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흥미를 잃고, 고통스런 일을 견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적인 상태가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지 실제 육체상의 고통이나 괴로움이 큰 것은 아니다. 다정한 사람하고 걷는다면 십리 길도 멀지 않다. 가기 싫은 길은 오리 길도 멀다. 일이란 본래 육체로 하는 것이지 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글씨를 쓰더라도 먼저 손을 놀려야 한다. 일의 시초는 육체의 발동에 있다. 처음부터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짊어진 것같이 생각하는 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무엇을 해야겠다고 마음은 있으면서 막상 시작은 못 하고 망설이는 사람이 있는데, 먼저 손이 시작에 들어서면 진행이 된다. 머리 속에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말고 가볍게 손발을 놀릴 것이 중요한 일이다. — D. 카네기(미국의 실업가)
- ♣ 노동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는 일은 없다. 그러나, 비등거리며 놀고 지내면 신체와 생명이 망쳐지고 만다. 왜냐하면 새는 날도록 태어난 것처럼 인간은 노동을 하도록 태어났기 때문이다. — 루터(독일의 종교 개혁가)
- ♣ 노동은 모든 것을 정복한다. — 베르길리우스(로마의 시인)
- ♣ 당신이 일을 쫓아라. 그렇지 않으면 일이 당신을 쫓을 것이다. — B. 프랭클린(미국의 정치가·문필가·과학자)
- ♣ 성공의 지름길은 첫째 일을 사랑하는 것. — 찰스

- ♣ 우리가 한층 더 일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우리는 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그만큼 우리에게는 할 일이 생긴다. — W. 해즐릿(영국의 평론가)
- ♣ 우리들은 보잘것없는 목적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온갖 수단을 사용한다. 인간의 일에 있어서는 지극히 복잡한 계획도 하나의 단순한 효과를 낳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 H. 보링브루크
- ♣ 인간은 그가 일상 종사하고 있는 노동 속에 그의 世界觀의 기초를 구해야 한다. — 페스타로찌(스위스의 교육자)
- ♣ 인간의 행복의 대부분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일과, 그 일로 인한 축복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리고 결국 일을 유쾌한 것으로 변하게 한다. 인간의 마음은 진정한 일거리를 발견했을 때처럼 유쾌한 기분이 들 때는 없다. 제군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거든 먼저 일을 시작하라. 실패한 생애는 대개 그 사람이 전혀 일을 가지지 않았거나, 일이 너무 적었거나, 혹은 정당한 일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일로 하여금 우리들이 섬기는 이상을 삼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일함으로써 참된 신에게 봉사하여야 한다. 이것을 돌보지 않은 사람은 죄다 노년에 이르러서 정신의 착란, 혹은 육체의 쇠약에 빠지고 만다. — C. 힐티(스위스의 철학자) / 일을 하는 技術
- ♣ 인간이 얼마만큼 일을 잘하고 얼마만큼 일을 많이 할 것인가는 그 사람 자신이 결정한다. 즉 인간은 자신의 생산량과 그 질을 결정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P.F. 드러커 / 現代의 經營
- ♣ 일에는 헛된 일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에는 성과가 따르고 생산이 뒤에 오게 마련이다. 그 성과와 생산이 길이 지속될 때에 우리의 기쁨은 허무하지 않다. 성과와 생산을 생각하며 일을 하면 일하는 동안에는 즐거운 것이 사실이다. 어떤 일이고 일하는 동안에는 고되고 힘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을 능히 참게 하는 힘은 주로 일이 끝났을 때에 오는 기쁨에 대한 예상에서 온다. — 李昌培 / 일과 기쁨과
- ♣ 일은 고귀한 마음의 영양이다. — L. 세네카(로마의 철학자) / 書簡集
- ♣ 일은 권태와 나쁜 짓과 가난을 멀리한다. — A. 모로아(프랑스의 작가·평론가) / 하나의 生活技術
- ♣ 일은 놀이보다는 피로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종일 일한 사람은 저녁때 이젠 자유롭다는 신선한 느낌을 갖는다. 그러나 종일 논 후에는 지독한 피로만

- 남을 뿐이다. 나는 일주일간의 놀이에서 완전히 회복되려면 일주일간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 — R. 린드(에이레의 수필가·비평가)
- ♣ 일은 모든 것을 정복한다. — 호메로스(그리스의 시인)
  - ♣ 일은 인간 생활의 피할 수 없는 조건이며, 인간 복지의 참된 근원이다. — 톨스토이(러시아의 작가)
  - ♣ 일은 좋은 습관과 소질과 순결을 필연적으로 낳고, 그 결과 건강과 富를 부여한다. — 보들레르(프랑스의 시인)
  - ♣ 일을 속히 하려 하지 말고 작은 利益을 돌보지 말아라. 속히 하려고 들면 철저히 해지지 않고 작은 이익을 돌보면 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論語
  - ♣ 일을 위해서 인간을 조직화한다는 것은 일면으론 인간을 그의 가장 적합한 직무에다 배치한다는 뜻이다. — P.F. 드러커 / 現代의 經營
  - ♣ 일을 즐겁게 여긴다면, 장시간을 할지라도 그것은 일이 아니다. 오락처럼 생각될 것이다. — D.M. 구드리치
  - ♣ 일을 할 때는 유쾌하게 할 일이다. 그렇게 하면 일도 능률이 오르고, 몸도 피로하지 않게 된다. 이것만 터득하고 있으면 신경쇠약 같은 것에 걸리지 않는다. — 와이레
  - ♣ 일을 해 보면 쉽다. 그런데도 이것을 어렵게만 생각한다. — 孟子
  - ♣ 일의 괴로움이야말로 한편으로는 진정한 기쁨이다. — 마니리우스(로마의 저술가)
  - ♣ 일의 쾌감은 고됨을 잊게 한다. — 호라티우스(로마의 시인)
  - ♣ 일이란 성공에의 찬스를 주고 야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출구를 준다. 일에 흥미를 가지려면 숙련과 건설이 있어야 한다. 근로에의 창조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샘터라고 하겠다. — 申一澈
  - ♣ 일이 즐거움이면 인생은 樂園이다. 일이 의무이면 인생은 地獄이다. — M. 고리키 / 밑바닥
  - ♣ 일이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은 없고, 면목이 없는 것은 게으른 것이다. — 헤시오도스(그리스의 시인) / 노동과 나날
  - ♣ 일하는 것은 내 느낌으로는 인간에게 있어 식사나 수면보다도 필요하다. — 훔볼트(독일의 언어학자)
  - ♣ 일하는 것, 이것만이 「살고 있다」는 증거다. — J.H. 파브르(프랑스의 곤충학자)



- ♣ 일하라! 더욱 일하라! 항상 일하라! — 강베타(프랑스의 정치가·변호사)
- ♣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하여 일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다. — L.N. 톨스토이(러시아의 소설가)
- ♣ 일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며 특권인 동시에 특기며 장기인 것이다. — 李泰極 / 일하는 人生
- ♣ 청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다만 세 마디뿐. 즉, 일하라, 좀 더 일하라, 끝까지 일하라. — 비스마르크(독일의 정치가)
- ♣ 항상 다만 오늘을 위하여서만 일을 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다. 내일은 저 혼자 찾아온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새로운 내일의 힘도 다시 찾아오는 것이다. — C. 힐티(스위스의 철학자) / 일을 하는 技術

## 2) 格言·俗談

- ♣ 가을일은 미련한 놈이 잘 한다. (가을 농촌 일은 매우 바쁘므로 꾀를 부리어 약은 수로 일을 하는 것보다 덮어놓고 닦치는 대로 해치워야 성과가 많다는 말) — 한국
- ♣ 공짜로 생긴 돈은 싸고, 땀 흘려 번 돈은 비싸다. — 러시아
- ♣ 노동은 건강의 반쪽. — 스웨덴
- ♣ 마음에 없는 염불. (하기 싫은 일을 마지못해 함을 이르는 말) — 한국
- ♣ 미치광이 풋나물 캐듯. (일하는 솜씨가 거칠고 어지럽다는 말) — 한국
- ♣ 손 안 대고 코 풀기. (일을 매우 쉽게 해치운다는 뜻) — 한국
- ♣ 식사를 내일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일은 미루지 말라. — 쿠르드
- ♣ 우리의 최상의 친구는 역시 일이다. — 프랑스
- ♣ 일이 바쁘면 입도 바쁘다. (일을 많이 하면 수입도 많아져 생활이 넉넉하게 된다는 뜻)
- ♣ 일이 없는 것은 쓰라린 일이다. — 영국
- ♣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 한 마리 더 잡아먹는다.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사람은 생활이 넉넉하게 된다는 뜻)
- ♣ 일하는 자를 神은 버리지 않는다. — 유고슬라비아

## IV. 일의 價値

“사람은 왜 일을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 19세기 유토피안 社會主義者들은 ‘일의 價値’와 ‘勞動의 威嚴’을 강조했다. 마르크스도 生産을 강조하면서 이윤 목적이 아니라 사용을 위해서이며, 따라서 사람은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산다고 하여, ‘일 자체에 만족이 있음’을 천명했다.<sup>33)</sup>

인간이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지구상에 살기 시작한 때부터 먹고, 마시고, 거처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연을 변화시키면서 자연을 加工하는 일이 필요하였다. 에덴 동산(Eden)과 같이 모든 열매와 식물 동물들이 잘 갖추어진 自然環境 속에서도 인간은 최소한도 열매를 따는 일, 저장하는 일을 수행하였고, 또한 狩獵을 위해 돌칼 만들기, 짐승의 뼈로 낚시 만들기 등의 일을 자연적으로 해야만 했다. 인간이 일을 하지 않고 사는 방법은 원래부터 없었다. 더욱이 자연의 産物들이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고 풍부한 조건에서는 그런대로 일을 적게 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환경이 나쁜 곳이거나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경쟁이 심해졌을 때는 훨씬 더 많이 어려운 일들을 해야만 하였다.<sup>34)</sup>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일의 의미를 ‘먹고살기 위한 生計의 手段’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옛말에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였고, 聖書에서도 이마에 땀을 흘리고 밥을 먹어라 하였으므로, 일을 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살기 위한 필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의 基本的 慾求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고 흔히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인간이 일을 해야 하는 理由는 삶에 있어서 生存의 수단이나 自己充足을 위한 生活의 方便으로서 인간은 원래부터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必然性을 갖고 있다.

원시인이든 현대인이든 일과 삶의 질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부지런히 일을 한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고 미래를 위해 저장할 수도 있었으며, 일을 싫어하고 기

33) Karl Marx,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Berlin, 1953 : 김광웅·허순희, 미래세대가 생각하는 일, 최정호·김형국 공편, 일의 미래 미래의 일, 도서출판 나남, 1990, P.238.

34) 김태길, 전개서, p.68.

피하는 자들은 삶이 고통스럽고 불안하며 결국 남에게 폐를 끼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런 점에서 일은 본래부터 인간의 삶을 보람되고 풍부하게 하는 源泉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일의 의미를 단순하게 먹고살기 위한 생계의 수단이라고만 국한시킨다면 일의 참된 가치를 이해할 수 없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은 生計手段이나 자기의 慾求充足을 위한 方便으로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본래부터 사람은 일을 하도록 創造되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는 살아가는 의미조차 느낄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인간은 일을 하기에 섬세하면서도 적합한 손(hand)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손으로 自然을 가꾸고 변화시키며 무엇을 만들어 내게 하는 頭腦, 思考力 그리고 創造力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데서 보다 근원적인 일의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무엇인가 손으로 일을 하도록 되어 있고, 손이 없었다면 인간은 動物보다도 가치 있는 일을 못했을 것이다. 進化論적으로 볼 때 인간의 섬세한 손의 발달도 自然環境과 투쟁하면서 살아온 인간의 오랜 生物學的 노력의 결과로서, 인간의 손은 自然史적으로 발전된 生物學的 기능이 며, 인간의 일도 자연과 어울려 사는 인간의 삶의 방식이라 할 것이다.<sup>35)</sup>

자기가 하는 일의 社會的 重要性을 인식하고 그 일 자체가 자신의 삶의 일부로서도 보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가 하는 일이 실제로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어야 하며, 일하는 본인이 자기가 하는 일의 전체적 맥락을 잘 알아야 한다. 예컨대, 인체건강에 해로운 식료품이나 약품을 製造하는 회사의 종업원은 자기가 하는 일의 사회적 의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sup>36)</sup> 일을 함에 있어서도 외부의 강요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마지못해 하는 일의 경우에는 불안한 마음과 괴로움이 앞서게 되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즐거움과 더불어 보람을 느끼게 되므로 그 일에 대한 가치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價値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事物이 지니고 있는 意義나 重要性을 말하는 것이다.<sup>37)</sup> 일의 가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의 代價인 報酬를 받기 위한 것만은 아

35) 김태길, 전개서, pp.68~97.

36) 김태길, 일에 관련된 윤리의 문제, 최정호·김형국 공편, 일의 미래 미래의 일, 도서출판 나남, 1990, pp.24~25.

37) 이승녕, 국어대사전, 교육도서, 1988, p.37.

니다. 물론 일을 하므로서 일차적으로는 生活手段을 해결하는 목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만이 인간의 삶의 목표가 전부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일을 한다는 것이야말로 인간을 아름답고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基本要素이다. 그러므로 일을 외면하거나 기피하고 별로 하는 일도 없이 편안한 생활을 원한다면 그러한 생각이야말로 인간의 기본적인 면을 부정하는 것이다.

일의 重要性을 삶의 質의 견지에서 보면 財力, 權力, 名譽 및 社會的 可視性이라고 하나, 이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은 일 자체의 보람, 일 자체의 맛, 멋, 재미, 뜻, 보람이라 할 수 있다. 앞의 富貴功名이 일에 따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보람, 즉 일의 外在的 價値라면, 일 자체의 보람은 일의 內在的 價値이다. 財力, 權力, 名譽 및 社會的 可視性이 어느 정도의 만족감은 주지만, 궁극적인 삶 자체의 充溢感을 주는 것은 일 자체의 보람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心理學者인 머슬로가 제시하는 人間慾求의 階層構造에서 보면, 富貴功名은 生理的 慾求, 安定感의 慾求, 所屬感의 慾求, 自矜心의 慾求와 같은 下位慾求를 만족시키지만 自我實現의 慾求라는 上位慾求是 충족하지 못하고, 이는 일 자체의 보람에 젖어 들어갈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sup>38)</sup>

인간은 萬物의 靈長으로서 뚜렷한 삶의 目標를 세우고, 창조적 삶을 實現하기 위해 忍耐하면서 精神的·肉體的 활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활동은 인간 모두가 자신의 價値實現을 위해 끊임없이 努力하는 것이다. 인간에 있어서 價値實現을 위한 활동이 없다면 동물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열심히 일을 수행하므로써 여러 가지 다양한 경제적, 물질적, 학문적, 문화적, 예술적, 정치적 가치실현을 위해 모든 활동이 이루어진다. 또한 인간의 역사와 발전은 이와 같은 價値實現을 위한 인간의 부단한 노력, 즉 일에 의하여 지금까지 발전되어 왔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되리라는 점을 깊이 認識하여야 할 것이다. 위대한 文明과 學問의 발전, 창조적·문화적 표현활동, 그리고 눈부신 產業發展 등과 같은 모든 일이 인간의 가치있는 삶을 위한 피와 땀의 結晶體이기 때문이다.

일의 가치는 그 일의 결과가 가져다주는 ‘자리’ 나 ‘편안함’ 에 있는 것으로서, 남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타인에게 보이기 위하여 수행하는 것도 아니

38) 정범모, 일과 삶의 質, 최정호·김형국 공편, 일의 미래 미래의 일, 도서출판 나남, 1990, pp.30~33.

다. 다만 자신이 추구하는 일 또는 직업이 최선의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姿勢에 있다.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것은 자신만이 評價基準이 되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일이 生活의 전부이며, 또한 가치 있고 즐거운 것이라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肯定的 思考와 積極的 方式으로 보람있는 일을 한다고 느낄 때 우리들의 삶은 창조적이고 가치 있는 생활이 될 것이다. 창조적 삶이란 自我實現의 결과이며 행복하고 만족한 삶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은 물론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일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의 가치는 生活의 기쁨과 연결된 것이다.<sup>39)</sup>

사람들은 누구나 幸福을 최고의 목표로 여기면서 행복을 원한다. 여기에 幸福이란 마음이 즐겁고 장래에 희망이 있으며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과 더불어 생활해 가는 데서 얻는 滿足感이라 할 수 있다. 생활 속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일을 하여 정신적 기쁨과 더불어 건강이 뒷받침될 때 幸福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幸福感を 느낌으로서 일의 가치를 찾아야 할 것이다. 루트비히 그라임은 말하기를 “자기가 하는 일을 즐기고 많은 일을 행하되,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참으로 고결한 인생”이라고 했다. 분수에 맞는 일과 생활을 통하여 묵묵하게 자기 인생을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삶의 幸福과 일의 價値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V. 結 論

사람은 누구나 일(work)을 하면서 일생을 살아간다. 일이란 자신 혹은 자신과 타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식적인 努力이라고 할 수 있으며, ‘휴식’ 과 ‘놀이’ (play) 또는 ‘여가’ (leisure)를 위한 활동을 제외한 모든 ‘생산적인’ 활동을 말한다. 人間을 위한 일의 機能은, ① 生計를 위한 收入 혹은 方法과 手段을 제공하고, ② 生活活動을 規則化하며, ③ 個人의 位置를 확인해 주고, ④ 社會活動의 機會를 제공하며, ⑤ 많은 유익한 生活經驗을 제공한다.

39) 김충기, 전게서, pp.21~25.

역사적으로 볼 때, 일에도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經濟活動의 기초를 노예에게 두었던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유와 생존의 영역을 정반대의 개념으로 여겨, 노예노동은 創造活動이 아닌 생존의 영역에 속하므로 이들이 수행해야만 하는 일과 노동을 천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일이란 주로 肉體勞動을 의미했으며, 그것은 노예들이 하는 고된 일, 가혹한 일로서 생각되었다. 전쟁의 포로나 죄인들에게 부과되었던 노예노동은 고대 문명의 성립을 이루는 원천이 되었다.

호머(homer)에 의하면 神들은 인류를 미워해서 그 분풀이로서 사람들에게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초기의 히브리(Hebrews)인들은 일을 나쁘고 고된 것으로 보았다. 초기 기독교인들도 일은 인간의 原罪에 대한 贖罪와 義務로서 일과 富를 賤視하여 富를 苦役의 댓가로 여겼다.

그러나 현대 産業社會에 접어들면서 그 개념이 바뀌어 가는 양상을 보이는데, 일은 천한 것만도 아니고, 강요에 의한 형벌의 고통만도 아닌, 더 잘 살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특히 일과 근면에 대하여 높이 評價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영국의 産業革命으로서, 그 이후 일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일은 人間生活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이며 신성한 것이며 즐거운 것이어야 한다는 견해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미국의 존 듀이(John Dewey)와 같은 教育哲學者도 놀이와 일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일생을 통하여 일을 열심히 하므로서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성실한 자세로 일을 함으로서 윤택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자기 발전의 原動力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은 개인적인 일상 생활의 과정이며 참된 삶의 中核을 이루는 것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일은 어떤 가치를 創造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신적 활동이나 육체적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기거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價値라고 한다. 일(work)이란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일은 내 자신에 대한 인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社會와 國家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인간에 있어서 價値實現을 위한 활동과 그러한 努力이 없다면 動物의 生活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人生觀은 어디까지나 가치관의 테두리를 정하고 그 속에서 참된 삶의 의

미와 眞理를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전통적으로 힘든 일을 꺼리는 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상존해 왔고, 현재에도 3D(difficult, dirty, dangerous) 현상이 전 산업 현장의 일터 또는 사회 곳곳에서 팽배해 왔으며, 그 결과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國際通貨基金) 救濟金融 사태는 國民 모두에게 지금까지의 그릇된 職業意識, 職業觀 등에 대하여 심각하게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리하여 일에 대한 가치의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한 올바른 價値觀을 재정립하여야 하는 시대적 상황을 직시하면서, 앞으로는 무엇보다도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 맡은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 하는 責任意識과 인간 본연의 모습에서 일의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일에 대한 價値實現과 價値觀 形成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광웅·허순희, 미래의 세대가 생각하는 일, 최정호·김형국 공편, 일의 미래 미래의 일, 도서출판 나남, 1990.
- 金義順, 일의 사회적 의미, 부산대 사대논문집, 27집, 1993.
- 김태길 외 3인, 삶과 일, 정음사, 1986.
- 김태길, 일에 관련된 윤리의 문제, 최정호·김형국 공편, 일의 미래 미래의 일, 도서출판 나남, 1990.
- 송재선, 우리말 속담 큰사전, 서문당, 1983.
- 柳彰烈, 일에 대한 人間基本態度的 比較 文化的 考察, 충남대 공업연구소 논문집, 제7권 제 2호, 1984.
- 李茂根, 實業-技術 教育論, 培英社, 1984.
- 이승녕, 국어대사전, 교육도서, 1988.
- 이어령, 문장백과대사전, 금성출판사, 1990.
- 李乙煥, 名言大百科, 錦湖書館, 1988.
- 全國教育大學校 實科教育研究會 編, 實科教育, 教育出版社, 1997.
- 정범모, 일과 삶의 質, 최정호·김형국 공편, 일의 미래 미래의 일, 도서출판 나남, 1990.
- 清水正德, 勞動의 意味, 한마당 편집부 옮김, 1983.
- Baily, L. J. and R. Stadt, Career education: New approaches to human development, Blommington, Illinois, MacNight Pub. Co., 1973.
- Bell, Daniel,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N.Y. Basic Books, 1973.
- Epstein, Cynthia Fuchs, The cultural perspective and study of work, in Erikson, Kai and Steven Peter Vallas(ed.), The nature of work, London : Yale Univ. Press, 1990.
- Freidson, Eliot, "Labour of love in theory and practice", in Erikson, Kai(ed.), The nature of work, Yale Univ. Press, 1990.



- Grint, Keith, *The society of work*, Cambridge, Polity Press, 1991.
- Karl Marx,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Berlin, 1953.
- Kenneth Hoyt, "Career education, vocational education and occupational education : An approach to defining differences," Second annual distinguished lecture, 1973~1974, The center for vocation(The Ohio University, 1974).
- London, H. H., *Principles and techniques of vocational guidance*, Charles E. Merrill Pub Co., Columbus: Ohio, 1973.
- Perkin, Harold, *The rise of professional society*, London: Routledge, 1989.
- Ronco, William and Lisa Peattie, *Making work : A perspective from social science*, in Phal, R.E.(ed.), *On Work*, Blackwell, 1988.
- Sigmond Nosow and William H. Form, *Man, work, and society*, New York: Basic Book Pub, 1962.
- Tilgher, Adriano, *Homo Faber*, Henry Regnery Company, 1958.